

18장_광명시 평생학습원

우리동네 UP 프로젝트

동네를 업(up) 시킨다!

좁은 골목길에 작고 오래된 가게들이 빼뿔 빼뿔 들어서 있는 우리 동네, 먼지가 가득 낀 쇼윈도에 삐걱거리는 낡은 문 소리가 요란한 우리 동네, 그런 우리 동네를 업(up) 시킨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의 곳곳을 변화시키는 일이란다. 공부방 선생님과 예쁜 미술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한다. 미술가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미술작품으로 우리 공부방과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단다. 공부방 아이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단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무엇부터 할까?

선생님께서는 우리 동네를 업 시키는 방법을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라고 하신다. 모두가 오르내리는 계단 통로, 아무도 주인처럼 돌보지 않아서 오래된 먼지와 화장실 냄새가 떠나지 않는 곳. 코를 쥐어 막고 다람쥐처럼 뛰어오르던 계단을 콧노래 부르며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재미있는 벽화도 그려 넣어 볼까? 화분도 들여놓자! 창으로 들어오는 밝은 햇살이 생명을 길러줄 거야. 그리고선 우리 모두가 이

계단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지. 그럼 공부방을 오르내리는 길이 훨씬 즐거워지겠지!

어른들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야심찬 ‘우리동네 UP 프로젝트’를 소개해야겠다. 바쁜 어른들이 오실까?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예쁜 미술선생님께는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다. 어른들을 초대해서 함께 비누를 만들자는 계획인데, 그냥 비누가 아니고, 천연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비누 안에 자연이 살아있는, 신기한 자연의 향기가 몽글몽글 피어나는 그런 비누를 만들었다. 비누는 가게에서 돈을 주고 사는, 단순한 생활 필수품인줄 알았는데, 비누 안에 자연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하다.

새해 다이어리를 만들자!

우리 동네를 ‘업’ 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메모도 해야 하고 일기도 써야 한다. 물론 계획표도 잘 세워야 한다. 어른들은 다이어리라는 것에 이런 걸 기록하던데, 그러면 우리도 다이어리를 만들어 볼까? 다이어리가 있으면 남은 2005 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거다. 물론 새해를 꼼꼼하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서도 다이어리가 꼭 필요하지. 미술선생님께서 이번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겠지?

만지면 따뜻한 느낌이 나는 종이, 글씨도 잘 써질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이 썼던, 우리 고유의 종이로 이름은 한지란다. 한지로 만든 다이어리. 우리 공부방 친구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다이어리를 갖게 될 것이다.

공부방의 새로운 가족

반짝반짝 깨끗해진 유리창을 통해 계단 통로로 햇살이 쏟아진다. 좋은 향기가 피어나는 올망졸망 귀여운 화분들도 가득하다. 아이들은 각자 하나씩 화분 친구를 맡아 돌보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식구가 또 늘어난단다. 체험 학습 때 곤충 농장에서 만난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가 이사를 온다. 콘크리트 건물에서 곤충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선생님께서서는 이사온 장수 풍뎅이를 위해 멋진 집을 지어주자고 하신다. 찰흙으로 만들면 멋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곤충들이 찰흙 집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도 있다. 화분에 놓아두면 잘 살 거라고 우기는 친구들도 있다. 사슴벌레를 위해서는 투명한 아크릴 판으로 곤충의 집을 만들어 주었다. 곤충의 집을 만들다 보니, 마치 돌보고 관찰하고 지켜줄 동생이 생기는 기분이다.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위해 일기를 쓰고, 건강 체크도 해줄 거다. 매일 이 녀석들이 보고 싶어 공부방에 달려오게 될 것 같다.

애들아, 공부방을 꾸미자!

오늘은 우리들의 소식을 담은 게시판에 만드는 날이다. 게시판에는 공부방의 새로운 소식들이 담긴단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멋진 미술작품과 함께 우리들의 사진도 담길 것이다. 공부방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우리 동네

어른들의 이야기도 담길 것이다. 공부방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멋진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 어린 동생들도 두 팔을 걷어 부친다.

하늘이 들어오는 공부방 창문에는 이름도 새겼다. 먼지가 새까맣게 앉았던 공부방 창문을 깨끗이 청소하고, 색색의 종으로 우리들의 공간임을 알리는 커다란 이름을 새겼다. 색종이를 잘라 이름을 새겼을 뿐인데 예술작품 같다. 1, 2 학년 어린 동생들의 방도 꾸며주었다. 사방의 벽에 부드러운 한지를 바르자 어른들의 딱딱한 사무실 같았던 공부방이 화사하고 아늑하게 바뀌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책상과 의자들을 꾸민다.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자르고, 푹푹뚫뚫 모두들 바쁘다. 처음에는 미술선생님을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모두들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다. 조금 시끄러워지긴 했지만, 공부방이 훨씬 멋지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공간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모두 작은 예술가

오늘은 게시판에 담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날. 손바닥만한 캔버스가 너무나 커 보인다. 캔버스 옆에는 그 동안 모아둔 캔 뚜껑, 종이 상자, 끈, 물감, 유리병, 비닐봉지, 단추, 나무조각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하다. 수명이 다한 물건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 나를 표현하기로 한다.

친구들은 벌써부터 물감을 섞느라 분주하다. 장난꾸러기들이 오늘은 진지한 얼굴로 속삭속삭 붓질을 해댄다. 천과 종이를 오려 붙이는 친구도 있다. 공부방 선생님과 미술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귀찮게 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다. 하나 둘 친구들이 작품을

완성한다. 자신의 작품을 들고 서서는 멋진 포즈를 취한다. 공부방 선생님과 미술선생님께서 즉석사진을 찍어주신다. 오늘날만큼은 우리들 모두 작은 피카소다.

오늘은 벽화 그리는 날

공부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통로의 벽에 벽화를 그리는 날이다. 선생님이 그려 넣은 커다란 산에 아이들이 꽃을 심는다. 꽃 위로는 나비가 날고, 새들도 날아간다. 둥실 떠있는 하늘의 구름도 손에 잡힐 것 같다.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건물 안에 옮겨놓은 것 같아 신기하기만 하다.

2 층의 할아버지, 3 층의 아저씨들이 지나가며 칭찬을 해주신다. 예전에는 무섭게만 보였던 어른들이 이제는 소란스러운 우리들의 인사를 웃으며 받아주신다. 우리들의 작품을 칭찬도 해주신다. 그럴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주말에는 엄마와 아빠가 우리 공부방을 보기 위해 오신다. 후원을 해주시는 많은 이웃 어른들도 오신다. 말끔하게 가꾼 공부방과 우리들이 가꾸어놓은 골목과 콘크리트 벽면 위에 펼쳐진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 모두들 깜짝 놀라시겠지? 하지만 우리 동네 가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 동네를, 우리의 환경을 미술가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됐으니까.

“우리동네 업(UP) 프로젝트는 계속된다!”

경기도 광명시 ‘만남의 집 꿈터공부방’에서 진행된 어린이를 위한 미술교육 ‘우리동네 UP 프로젝트’

